

#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개최

국립무형유산원, ‘음식문화’ 주제 16~25일 온라인 개최·23~25일 대면행사 진행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16~25일까지 2022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IIFF)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후 23~25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개막식을 포함한 대면행사가 진행된다.

영상축제의 주제는 ‘음식문화’다. 음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 만들고 나누는 모든 과정에 문화적 의미가 담긴 무형유산이다. 좁게는 집안에서부터 넓게는 지역과 나라별로 다른 음식문화는 각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음식문화를 담은 영화와 영상으로 무형유산이 얼마나 일상과 가까운지를 소개한다.

상영작으로는 총 18개 국가 32편의 영상을 선보인다. 2편의 영화를 제외한 전편을 네이버 TV(tv.naver.com/iiiff2022)를 통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개막작으로 선정된 ‘평양랭면(2021)’, 벨기에 맥주문화를 다룬 ‘랍빅, 시간과 열정의 맥주(2020)’, 멕시코 전통요리를 소재로 한 ‘다이에나 케네디: 파카몰리 철화(2019)’, 미국의 테이블세팅 대회를 기록한 ‘세팅!(2021)’ 등이 있다. 그리고 아카이브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된 ‘제주 떡 우주를 보다(2022)’는 국가무형문화재 ‘떡 만들기’의 제주도 문화



2022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포스터

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외에도 무형유산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작품으로 영국 더럼 지역의 탄광 역사를 아

다운 영상으로 표현한 ‘광부들의 찬가(2011)’, 북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사는 마론데 공동체 남성들의 탈춤을 다룬 ‘사운드 오브 마스크(2018)’, 스위스 시계 제작 과정을 담은 ‘시계 공장의 아나기스트(2022)’ 등이 있다. 특히 폐막작 ‘영원, 위나이파차(2017)’는 남미의 사라져 가는 안데스 아이마라족을 다뤄로 담은 작품이다.

한편 올해는 축제성을 살리기 위해 3년 만에 대면 행사를 운영한다. 24일 오후 7시 영화 ‘된장(2010)’을 상영하는데, 배우 류승룡과 이요원이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국가무형문화재 ‘장 담그기’를 소재로 한다. 상영에 앞서 오후 3시에는 국립농업과학원과 협업으로 장 담그기 체험을 열고, 오후 6시에는 된장 식품망인 조정숙과 요리하는 영화기자 김구철이 된장과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좌석에 제한이 있어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iiiffa.gov.kr)과 공식 사회관계망(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국립무형유산영상축제’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전화(070-7954-1152)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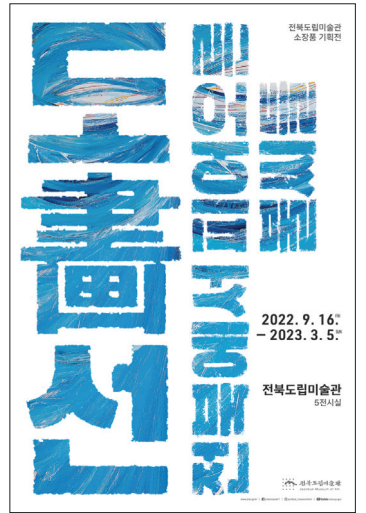
16일부터 ‘도화(畵)선 : 전북에서 피어오른 불씨들’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2022년 소장품 기획전 ‘도화(畵)선 : 전북에서 피어오른 불씨들’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립미술관은 전북지역의 거점 시각예술 기관으로서 다양한 전시기획, 작품 수집과 연구를 수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수집해 온 소장품을 도민들에게 환류함을 목표로 매년 소장품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미술관의 소장품 중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70세 이상 원로작가의 작품을 선정해 ‘도화(畵)선 : 전북에서 피어오른 불씨들’을 16일부터 전시한다. 이는 전북 미술사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로작가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지역 미술사에 끼친 영향과 흐름을 연구하고 재정립하고자 함이다.

특히 전북에 본격적으로 화단이 성립된 이후, 지금까지도 전북미술의 맥이 이어져 올 수 있는 것은 지금도 붓을 놓지 않은 채 묵묵히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원로작가의 예술혼이 살아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 미술의 주역들의 작품은 주제, 매체, 접근 방식, 표현형식 등 모두 다양하지만 ‘미술’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은 동일하다.

한편 전시제목인 ‘도화(畵)선’은 곧 이를 형상화한 단어로, 폭박이 일어나도록 불을 붙이는 심지의 의미에 ‘그림 화(畵)를



대입한 것이다. 전북미술을 밝히는 불씨가자 동시에 지역미술과 후대에 영향을 주는 심지 역할을 해온 원로작가들이 있었기에 전북의 미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목으로써 강조했다.

이번 전시는 그들의 작품세계와 전북미술의 연대기를 함께 확인해볼 수 있는 자리로서,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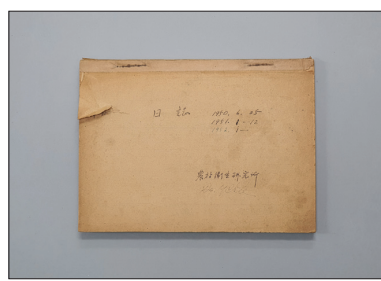
농촌 보건위생 선구자로 군산서 활동

군산시는 지난 7일 농촌 보건위생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영춘 박사가 직접 기록한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영춘 박사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활동한 의료인으로 지난 1945년 개정중앙병원을 개설, 1948년 정읍에 화호중앙병원을 설치하는 등 지역농민들에게 많은 의료혜택을 줬다.

이와 함께 1948년 농촌위생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교육과 보건요원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1961년에 개정간호학교 설립 등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했다.

이에 대한민국민훈장장, 대한적십자 봉사상을 받았으며, 사후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추서됐다.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은 1935년 자혜진료소 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3천 가구 2만여명을 대상으로 진료하면서 기록한 ‘자혜진료소 일지’, 1947년부터 농촌주민의 건강상태와 농촌의 의료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개정중앙병원 진료기록’ 등 1천

25점이다.

기록물 중 ‘농촌위생연구소 일지’의 경우 농촌사회에 민연한 기생충, 결핵, 전염병 등으로부터 농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펼친 농촌위생사업 활동과정이 담긴 기록물로 의료계가 구축되기 전 농촌 보건위생 체계를 갖춘 사례로 공중보건 의료사에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시 관계자는 “이영춘 박사의 사회공헌과 노력, 그리고 군산의 역사를 알릴 수 있게해 준 문화재청 및 관계전문가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군산의 문화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문화유산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보관 및 관리 중에 있으며, 추후 보존처리 및 연구가 진행 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당북초 국악관현악단, 미술 전국국악경연대회 초·중 단체부 대상’ 쾌거

당북초등학교(교장 문홍운)는 최근 비대면 영상대회로 치러진 제13회 미술 전국국악경연

대회 초·중 단체부에서 당북내 관현악단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포함해 12개 팀 중 당북내 국악관현악단은 ‘해자나침침나네’ 곡을 멋지게 소화해 위와 같은 성과를 거뒀다. 문홍운 교장은 “당북초 학생들이 우리 국악

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돼 정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생들 스스로 국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신의 꿈과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공예품전시관, ‘흑백전’ 체험 워크숍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통 갓끈을 모티브로 한 체험 워크숍을 진행한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국립무형유산원·한국문화재단과 함께 특별전으로 진행해 온 ‘흑백전(黑白展)’의 부대행사로 16일 체험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흑백전(黑白展)’에서는 흑색을 대표하는 전통 공예품으로, 조선시대 성인남자들의 일상 복식에 착용했던 ‘갓’이 전시됐다. 이 ‘갓’은 머리 위에 얹어지는 모자(帽子) 부분과 차양부분인 양태(凉太)로 구분된다.

모자는 원통형, 양태는 둥글면서 완만한 곡선이 잡힌 형태로, 그 위에 전사, 명주 등을 사용, 표면을 꾸며줘 다양한 갓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갓’은 조선대부터 지금까지 그 제작 방식이 이어져 내려와 ‘갓일’이라는 명칭으로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전주공예품전시관 명인명장관에서는 말총을 엮어 모자를 만드는 총모자장 김순자 보유자와, 고(故) 김인 명예보유자의 작품, 그리고 양태와 총모자 두 가지로 형태를 잡고, 다양한 재료의 꾸밈을 통해 완성품을 만들어 낸 입자장 박정영 보유자와, 정춘보 보유자의 작



4호 갓일 박정영 흑립

품을 관람할 수 있다. 갓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갓 끈은 갓을 고정하기 위한 실용적 용도 외에도 착용자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갓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됐는데, 여기에는 오죽, 옥, 마노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됐다.

체험 워크숍은 전주공예품전시관 다목적관에서 16일 오후 2시와 3시 2회에 걸쳐 선착순 20명에 한해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여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 명인명장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이며, 문의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063-281-1610)으로 연락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온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하모니

## 제6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합창제

2022년 9월 17일(토) 오후 4시~

### 전주 바울교회 2층 그레이스홀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